

산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니...



박 상 배 위원
경기중재부

“당신들은 왜 산에 오르는가?” 그들은 말한다. ‘거기 산이 있어 간다’고. 이 일면의 명쾌한 대답이 또 어디 있겠는가. 고전이 됐지만 35년 전쯤일까,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의 최정상 마나슬루 峰에 우뚝 섰던 그들이 민족적 감격을 전하며 던졌던 문답이다.

개나리 진달래 꽃 구름 가득한 4월, 남녘 花信이 북상한다기에 주말을 맞아 모처럼 관악산 팔봉에 올랐다. 소박한 마음에 그때 그들이 생각나 발아래 펼쳐진 세상을 다시 한 번 내려다보았다. “산엔 왜 가요” 편잔에도 부득불 말없이 집을 나선 터다. 山도 나처럼 언제나 말이 없다. 그러나 山은 항시 말을 하고 있다. 단지 山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만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산을 오르며 속세를 말한다. 아들딸 자식 취직·결혼 걱정, 남정네 허물 처가 자랑, 물가 집값 쪼그라들기만 하는 살림살이, 이곳저곳 세상타박이 그치질 않는다. 탓할 일이 없다 보니 마뜩지 못한 정계로 화살이 돌아가곤 한다. 온갖 시름 근심 다 쏟아놓지만, 山은 응석으로 알고 다 받아준다. 그리고도 山은 오르는 이들의 육신과 영혼의 안녕만을 빈다.

그래서 산은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 산은 언제나 인간을 위로한다. 아끼고 사랑한다. 술한 문명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자손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인간에게 있어 영원한 어머니의 가슴만한 곳이 또 있을까. 무슨 밑담이라도 있는 양 틈을 짜 멀리 필드(골프장)로 뛰쳐나가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들어도 좋을 세상만사를 가까이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삶의 형편이 팍팍해질수록 군중이 날로 몰리는 이유가 비단 이 뿐만일까.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운다. 인생이 지향해야 할 목표도 배우고, 가치도 가진다. 인간은 왜 꿈을 가져야 하는가와 함께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동시에 얻는다. 이를테면 의지와 저력 그리고 겸손을 함께 전한다. 그래서 산은 항시 이상을 향해 하늘로 치솟고 현실을 향해 지상을 굽어보는 듯하다. 마치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든 플라톤과 땅을 쪼든 손가락을 거꾸로 세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哲人들을 음미케 한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산이 말하듯 사유, 사변 또한 그 속에 스며 있다. 각급 학교 동창회, 경향 각지 향우회, 동아리 단합대회, 입사시즌 사원연수, 극기와 단합이란 휘황찬란한 명분과 깃발들이 제각기 산으로 산으로 모인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은 산에 오르지 마라.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라. 땀 흘리는 기쁨을 아는 자만이 목표를 세우고 땀을 쏟는 사람만이 정상에 올라 승자가 될 수 있음을 산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고 진리이다.

산에 오르면 겸손도 알게 되고 분수도 알게 되며 어려운 고비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사랑하며 허찮은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우리는 귀한 선물로 얻을 수 있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말한다.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귀의(歸依)하는 것’이기에 산과 자연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간의 히말라야 등 술한 산행을 통해 터득한 ‘인생철학’에 신앙적 의미까지 보태 말한다.

이를 아는 사람들은 산에 오르고 또 오른다. 억만년 영겁 속에 말없이 산을 오른다. 산은 말없이 그 깊은 침묵 속에 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고뇌를 다 묻고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듯 엄숙하고 도도히 누워 있다. 산은 결코 말이 없되 모든 걸 다 말해 주고 있다. 귀가 되어 모든 걸 다 들어준다. 그리고는 산처럼 엄숙하게 묵묵히 진지한 인생을 살라 한다. 산처럼 겸허하게 착한 인생을 살라 한다. 땀 흘리며 산을 오르듯 그렇게 열심히 한마음으로 살라 한다.

산에 오를수록 산 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